



녹차, 다반사, 단감, 감꽃, 그리고 문화

녹차나무의 어린잎만을 골라 말렸다는 우전 한 모금을 마십니다. 한여름 띄약벌에 몸을 말려도 뚫은내 가지지 않는 것이 생생이라고, 당신 역시 뚫은 내 나는 차잎이라고, 녹차 한 잔이 느긋한 생을 가르쳐 줍니다. 차를 마시고, 차물에 밥을 말아 먹는 일들을 불가佛家에선 다반사라 불렀습니다.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, 바로 여기서 비롯된 말입니다. 차를 마시듯 흔한 일이 다반사라는 데, 불가의 그들처럼 수

행하듯 차 한잔을 마셔본 적은 혹 있었는지요. 다반사는 겸손입니다. 그리고 다반사를 즐겼을 스님들의 몸에서는 잘 익은 단감의 향이 났을 겁니다.

10월은 문화의 달입니다. 좋은 책 한 권을 읽는 일, 귀가 즐거운 음악을 듣는 일, 감동스런 공연을 보는 일, 한 끼의 밥을 정성껏 먹는 일 모두가 문화를 누리는 일입니다. 일상다반사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. 불가의 스님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목걸이로나 쓸 수밖에 없는 감꽃입니다. 꽃이라고 이름 붙여 그나마 다행입니다. 문화의 달에 무엇을 해볼까 고민할 일은 없습니다. 한 잔의 억지 차가 다반사의 의미를 흐리듯, 주말의 명화 한 편을 보더라도 순정한 마음으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으면 그것이 문화를 누리는 일입니다. 뚫은 우리네 생이 단감으로 익어갑니다. 그 익어감조차 문화입니다. **추천**

박용두기자